

야심찬 기획의 새 시리즈

한길사 '넥스트'

'무거운 지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격조있는 재미를 위해' '비주얼한 책을 위하여' '세상을 읽는 지식, 변화하는 삶을 위하여'. 한길사가 새롭게 선보이는 시리즈 'NEXT'의 캐치프레이즈다.



이른바 '고급지식의 대중화'로 진정된 책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한길사의 기획의도는 우선 지난해말 1차분으로 선보인 역사, 고고인류학, 현대사회와 과학, 민속 등 분야의 내권으로 표출됐다.

원형사관의 독특한 이론을 구축한 김용운(전 한양대 수학과)교수의 '원형의 유혹'은 "모든 문화는 민족고유의 원형에서 파생하며 역사의 전개양식은 원형과 시대적 환경과의 긴장관계에서 생긴다"는 논지를 비교문화적

시각으로 서술한다.

「털없는 원숭이」로 잘 알려진 데스몬드 모리스가 이번엔 현대인이 몸담은 도시환경을 냉소적으로 비유한 「인간동물원」(김석희 옮김)을 썼다. 북적거리는 도시속에 오히려 외로운 인간은 아직도 원시를 꿈꾸는 동물일 뿐임을 저자는 경고한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하지 않았다」(게르하르트 프라우제 지음/서정복 옮김)의 제목에서 느껴듯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역사가 항상 진실이 아님을 깨우치는 글이다.

스티븐 버트먼의 「동굴에서 들려오는 하프소리」(김석희 옮김)는 독자로 하여금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트로이 성벽, 폼페이 매춘굴, 중국의 만리장성, 안데스산맥의 동굴 속으로 넘나들게 한다. 이 낭만적인 고고학 여행에서 고대의 살아있는 정신을 만날 수 있다.

NEXT 시리즈는 앞으로 계절마다 5권씩 출간, 20종 가량의 신간을 선보일 예정. 미술영화 패션 매스미디어 등 생활에 밀접한 고급한 정보까지 다룰 계획이다.

웅진출판 '한국의 산업연구'

개별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총격적으로 진단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본격적인 산업분석 시리즈다.

우선 1차분으로는 발전정도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식되는 「건설업」 「광고대행사」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등 4권을 출

간, 각 산업별 특성을 심도있게 해석하고 있다.

각권은 해당산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동종기업과의 비교, 개별기업의 경영성패 및 장단점 분석, 세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세계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발전여부 모색,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건설업계 동향과 산업특성을 분석한 「건설업」(심의섭, 명지대 경제학 교수), 21세기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 중추로 떠오르고 있는 광고대행업의 세계를 살핀 「광고대행사」(신인섭, 한국ABC협회 전무이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대표적 산업으로 떠오른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을 드러낸 「자동차산업」(박원장, 기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시장현황을 포괄적으로 소개한 「반도체산업」(조민호, 매일경제신문 기자) 등.

이 시리즈는 앞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국제경쟁력이 있으

며 미래유망산업의 발전가능성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선정, 계속 출간할 예정이다.

한빛 '꿈을 담은 책'

흔히 어린시절의 꿈은 대통령 혹은 장군 판검사 등 막연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국민학교 고학년 이후부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

'꿈을 담은 책' 시리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상세하게 설명, 직업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다.



1차분 5권으로 나온 책 역시 「영화감독」 「야구왕」 「만화가」 「연예인」 등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직업이 소개되고 있다. 국민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을 위해 소설형식으로 소개, 흥미롭게 서술한 것도 특징.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철학으로 시작한 이 시리즈의 목적이 어떻게 계속될지 지켜볼 만하다.

그림으로 어원 풀이한 한자공부

중국학자가 펴낸 「漢字正解」



한자 익히기의 첫걸음은 그 자원(字源)과 본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부분의 한자는 한 글자가 여러 뜻을 지니고 있다. 즉 한자 하나하나마다 독립적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한 소리부호가 아니라 여러 글자의 조합으로 또다른 의미까지도 생성해낸다.

중국사회과학원 언어문자용어연구소 주임 연구원(교수)으로 있는 이락의 교수는 한자의 이런 기본특성에 착안, 「한자정해」를 통해 자원이해와 해석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흔히 한자학습의 입문서로 알고 있는 「천자문」은 적어도 한자 2천5백자를 익힌 후에

야 읽어볼 수 있는 쉽지 않은 책이며, 우리나라 한자해설서들이 한나라 허신이 쓴 「설문해자」에 근거를 둔 것과 달리 이 책은 갑골문 발견이래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한자의 변화발전 과정을 행서→초서→해서→예서→전서→금문→갑골문까지 거슬러올라 맨처음 갑골문으로 표현해낸 의도를 그림으로 재현, 해석함으로써 한자의 정확한 어원을 일목요연하게 짚어내고 있다.

예를 들면 집 가(家)의 경우 이렇게 설명한다. 고대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죽은후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일반백성들은 사당을 따로 세울 수 없으므로 흔히 살던 집(宀) 안에서 돼지(豕)를 잡아놓고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곧「家」이며 후에 의미가 확장돼 「가족」 「주소」 「주거」의 뜻을 갖게 되었다.

특히 한자의 뜻은 전통적인 훈독방식을

지양하고 대표적인 뜻 두세개를 영어 단어와 함께 실었으며, 모든 한자마다 갑골문에서 초서 행서에 이르는 일곱가지 자체를 순서대로 배열해 그 역사적 변천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총 1천자에 해당하는 한자풀이를 다시 우리말순으로 엮어 찾아보기 쉽게 배려한 것도 특징.

당초 저자의 저서 「한자연변오백례」의 한국어판을 출간할 계획이었다가 이 책을 출간한 비룡출판사 대표이자 역자인 박기봉씨가 저자를 직접 만나 한국·상용자표」의 의한 5백자를 추가할 것을 요청, 완전히 새롭게 서술했다는 후일담이다. 이미 출간된 영어판과 불어판 독어판에 비하면 내용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라고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비룡출판사/A5신/1013면/각 5500원